

### 한국전쟁 61주년 앞둔 '전쟁영웅' 송효석씨



## “지금도 생생한데... 잊혀져 가는 6·25 아쉬워

### 청력 잃고 남은 건 훈장 4개지만 후회는 없어”

“61년 전 그때만 생각하면 아직도 눈 사울이 붙어져. 빗발치는 총탄에 허망하게 쓰러져갔던 동료, 그리고 무고하게 죽은 우리 민족들을 어떻게 잊겠어.”

6·25 한국전쟁 61주년을 앞두고 광주·전남 출신 6·25전쟁 영웅 가운데 유일한 생존자인 송효석(84)씨를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5동 자택에서 만났다. 그는 한국전쟁편찬위원회가 선정한 호국용사 100명 중 1명이자, 전쟁기념관이 선정한 6·25전쟁 영웅 171명 중 1명이다.

강진 성전면이 고향인 송씨는 해방 직후인 1945년 9월 15일 17세의 나이에 제1사단에 입대해 22세 때 6·25를 경험했다. “지금도 생생해.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되고 차례로 오산, 대전, 목포, 포항이 넘어갔지. 우리는 남으로 후퇴할 수밖에 없었어. 처음에는 전쟁에서 지는 줄 알았어. 그렇게 내려가다 보니 낙동강이더라고. 최후의 보루였던 셈이지.”

대구와 불과 50리 떨어진 칠곡군 가산면 다부리. 송씨와 제1사단은 6·25 전쟁에서 가장 치열했던 전투로 손꼽히는 다부동전투 한복판에서 북한 3개 사단과 마주했다. 적의 도하를 막기 위해 중요 거점을 중심으로 적과 싸우기 시작했다. 그리고 8월 8일 중월 거점인 369고지를 적에게 내주고 만다.

“369고지는 꼭 되찾아야 하는 고지였는데, 적의 전자 공격이 거세 밀릴

수밖에 없었어. 그래서 당시 김원희 소위를 중심으로 나를 포함해 12명의 특공대가 조직됐지. 1주일간 훈련받고, 8월 12일 오후 12시30분 적의 전차를 파괴하기 위해 투입됐지. 가슴과 등에는 사신(死神)이라고 써붙였어. 그때는 부모님도 고향도 잊고 오로지 고지를 탈환해야 한다는 생각만 했어.”

특공대는 적진에 침투해 북한군 전차 4대를 파괴하고 1대를 노획했다. 또 북한군 극비문서도 찾아냈다. 하지만 12명 가운데 2명이 죽었다. 송씨도 바로 옆에 떨어진 포탄 때문에 청력을 잃었다. 그는 화랑무공훈장을 받고 특진해 소위로 임관했다. 청력

과 맞바꾼 훈장이었다.

그리고 휴전협정이 체결되고 1958년 11월 30일 전역해 14년 만에 귀향했다. 송씨는 지금도 동료가 묻힌 국립묘지를 찾곤 한다. 죽음의 고비를 수십차례 넘긴 그에게 남은 것은 훈장 4개와 잃어버린 청력뿐이다. 하지만 그는 후회하지 않는다고 한다.

“후회는 없어. 단지 6·25와 같은 전쟁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랄 뿐이지. 나도 동료 곁으로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단지 아쉽다면 우리가 6·25를 점점 잊어간다는 것이지.”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사진=김진수기자 jeans@

### 국립공원의 아생화

습한 산지 자생... 휘어진 풀주머니 지녀

<45> 산괴불주머니 ‘산괴불주머니’는 50cm 정도로 자라는 현호색과의 두해살이풀이다. 중부지방에 특히 많고 깊고 깊은 숲속보다는 반쯤 빛이 드는 숲 가장자리, 산과 인가가 만나는 곳 등의 다소 습한 곳에서 쉽게 볼 수 있다. 괴불주머니류 중에서 산에서 많이 볼 수 있어 ‘산괴불주머니’라고 이름 붙여졌으며, 현호색과 닮았지만 현호색보다 꽃이 가늘고 풀주머니가 위쪽으로 조금 휘어진 점이 다르다.

<박성배 내장산국립공원 백암사무소 자원보전과장>

### 김윤상 교수 모체태아의학 우수논문상

전남대병원 김윤상 산부인과 교수가 최근 서울대병원에서 열린 ‘제 17차 대한모체태아의학회 학술대회’에서 ‘만삭전 조기 양막과열 임부에서 amoxicillin과 erythromycin 병합 및 3세대 cephalosporin계와 metronidazole 병합 투여 후 정맥혈장내 지질과산화도, 단백산화도 및 interleukin-6의 변화’ 주제를 논문으로 우수 논문상을 수상했다.

수상 논문은 지난 한 해 동안 대한모체태아의학회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 중 가장 우수한 논문으로 평가됐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 “과거의 잘못된 역사 바로잡아야”

### 백아산 공비토벌 민간인 피해보상 촉구 나선 정승호씨

“은 동네가 불바다가 돼 검은 연기 가 하늘을 덮었고 사람과 소, 돼지, 닭이 불에 타 죽거나 불길을 피해 도망다니던 처참한 광경이 60년이 지났어도 눈앞에 선명하네요.”

한국전쟁 당시 화순 백아산 일대에서 벌어진 군의 공비토벌작전으로 하루 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은 정승호(73·광주 광산구)씨는 22일 60년 전의 아픈 기억을 털어놓았다.

1950년 12월 10일 화순 일대에 주

둔 중이던 육군 11사단은 백아산 일대 공비를 고립시키기 위해 북면과 이서면 일대의 민간 마을에 대해 대대적인 소각 작전을 펼쳤다.

당시 13살이던 정씨는 가족과 함께 살고 있었다. 하지만 정씨 가족은 군의 무차별한 작전 전개로 집과 논·밭을 모두 잃고 작전이 완료되까지 5년 동안 가족들과 헤어져 친척집을 떠돌며 어렵게 살아야만 했다.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 결과 화순

지역의 민간인 희생자는 총 308명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일가족이 몰살당했거나 유족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 신원을 하지 않은 경우까지 포함하면 실제 희생자는 훨씬 많을 것이라는 게 유족들의 주장이다.

군사정권 시절 진정서를 냈다가 오히려 공비로 몰리는 고초를 겪은 정씨는 문민정부가 들어서 이후 화순 지역 피해자들과 함께 손해배상을 주

진했다.

2009년 진실화해위의 조사를 통해 피해 사실이 밝혀졌고 정씨는 이를 근거로 피해자들을 대표해 지난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하지만 지난해 법원은 증거 불충분과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정씨의 소송을 기각했다.

정씨는 최근 광주와 전남·북 지역의 피해자들과 배·보상, 진실규명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위해 의원들을 상대로 입법 활동을 벌이고 있다.

정씨는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아야 새롭게 시작할 힘이 생기는 법이다”며 “이제라도 정부가 과거의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 자산관리공사, 지적장애인 후원금 전달



한국자산관리공사 광주전남지사(지사장 오병근)는 지난 21일(사)광주시지적장애인복지협회 행복주간보호센터(센터장 최영애)에 지적 장애인을 위한 ‘시랑의 후원금’ 600만원을 전달했다.

### 조선대-中 절강과기대 교환학생 협정



조선대(총장 정호중)는 최근 중국 항주시 절강과기대학교와 교환학생 협정식을, 항주한상회와 한·중 산학협력 협정식을 각각 가졌다. <조선대 제공>

### 건강관리협 건강증진 캠페인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본부장 이규익)는 지난 21일 나주선거관리위원회에서 중부권 직원 50여명을 대상으로 건강증진 캠페인을 실시했다. <건협 제공>

### 조기선 음식업 시지회 고문변호사 위촉

조기선 변호사(오른쪽)가 22일(사)한국음식업중앙회 광주광역시지회(지회장 김호대) 고문변호사로 위촉됐다. 조 변호사는 앞으로 1만4000여 회원의 권익보호를 위해 각종 법률상담 등을 하게 된다.

### 이동근 교수 '대학 신문읽기 강좌' 선정

조선대 이동근 신문방송학과 교수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지원하는 ‘대학 신문읽기 강좌’ 지원 대상에 선정됐다. 이에 따라 이 교수는 오는 2학기에 3~4학년들을 대상으로 ‘신문기사 정독을 통한 올바른 사회관 정립’ 강좌를 개설 운영한다.

### 인사

◇관세청 ▲목포세관장 홍형식

### 해남 손광길씨 ‘붉은 찔레꽃’ 증식 성공

우리 가요에 등장할 정도로 흔한 토종식물이었지만, 지금은 거의 사라진 붉은 찔레꽃이 전남 해남의 한 야생화 화원에서 활짝 피어 눈길을 끌고 있다.

붉은 꽃을 피우는 토종 찔레는 해남군 삼산면 팜밭 야생화 화원의 손광길(52)씨가 5년여 전 해남의 도로공사 현장에서 발견한 것으로, 지금은 20여m 울타리를 이룰 정도로 증식에 성공했다.

붉은 찔레는 흰 찔레가 지고 난 후 6월 초부터 꽃을 피우기 시작해 한 달여 간 2~3cm 크기의 진분홍의 화려한 꽃이 피고 지기를 반복한다. 또 키가 2m까지 자라고 수형 조절이 쉬워 울타리 등으로 조성하기에도 안정맞춤이다. 지금은 대부분 사라져 일본산 붉은 찔레가 토종으로 둔갑해 거래



되고 있을 정도로 멸종 위기에 놓여 있는 식물이다.

손씨는 22일 “사라져 가는 붉은 찔레를 어렵게 증식해 냈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동호인과 주민의 발걸음 이어지고 있다”면서 “원하는 주민에게는 꺾꽂이용 줄기도 분양하는 등 토종 야생화의 소중함을 널리 알리고 싶다”고 말했다.

### 한미관계 홍보대사 위촉장 받은 하인스 워드

“한국과 미국의 우호 관계가 지속되고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미 프로풋볼(NFL)의 한국계 스타 플레이어인 하인스 워드(35·피츠버그 스틸러스)는 21일(현지시간) 뉴욕 한국총영사관에서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으로부터 한미관계 홍보대사 위촉장을 받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6년 전 슈퍼볼의 최우수선수(MVP)가 되기 전까지는 한국에 대해 배울 기회가 거의 없었지만, 어머니와 함께 한국을 방문한 이후 한국 국민의 많은 사랑을 받게 됐다”며 “한국 문화를 배울 수 있도록 한국을 자주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한국 음식 중 수제비와 갈비를 좋아하지만, 한국말은 배우기가 쉽지 않다는 그는 “가족처럼 반겨주고 아껴주는 한국인들이 고맙다”면서 “저를 믿고 희생해주신 어머니에게



특별한 감사를 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워드는 한·미 국민 간 유대를 증진시키는 가고 역할을 해달라는 한국 정부의 제의에 “한국을 위해 이바지할 수 있는 일이라면 가까이 해보겠다”고 수락했다며 앞으로 미국에서 열리는 각종 한국 관련 행사에 참석해 홍보 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생활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 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님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28 FAX. 062-222-4938, 222-4918

창회관(북구 중흥동 안보회관 옆) 6층 010-3609-6410.

**학측**

- ▲김선자씨 장남 고대석군 최형욱·정형숙씨 장녀 남진양=25일(토) 낮 12시 40분 웨딩의 전당 금초 30층 아시아나홀.
- ▲재광 무안초교 50회 동창회(회장 김영갑) 월례회=23일(목) 오후 7시 소촌동 오리와 숲속 062-944-3379.
- ▲광주서산고 총동문회 정기이사회 및 임원 워크숍=25일(토) 오후 6시~26일(일) 담양온천리조트 062-527-6770~1.
- ▲전남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MBA(회장이기상)정기총회=29일(수) 오후 6시 30분 전남대학교총동

**모집**

- ▲광주 시사 영어 전문학원 고등보험=FREE TIME 제도, 답안제 관리, 매달 모의 토익 시험 실시, 소수 정예, 주말반 가능. 062-223-0582.
- ▲거동 불편한 어르신=65세 이상 어르신 중 거동 불편한 분을 사람과 섬김의 정신으로 목욕·물리치료 등 제공, 참·더부러 제가노복지센터 062-266-6321~2.
- ▲황새추수클럽=추수에 관심있으신분 누구나 환영 회원 수시모집(두암동 거주자 대 환영) 010-8216-8585.
- ▲북구 골든벨 축구클럽 동호회원=즐겁게 운동할 수 있는 분. 20세 이상, 선수출신 환영. 010-3608-1060.
- ▲사단법인 효사랑 봉사단=팀

**향우회**

- ▲재광 보성읍 향우회(회장 김선주) 정기총회=23일(목) 오후 6시 30분 흥백회관 062-228-3382.
- ▲재광 순창 향우회(회장 김진곤)=29일(수) 오후 7시 심상민 민어전어 식당(대인동) 062-227-2179.
- ▲동래정씨 광주전남 종친회(회장 정한영) 정기총회=23일(목) 오전 11시 무등고시학원 011-9615-8567.
- ▲의성김씨 광주·전남 종친회(회장 김원규) 정기 임원회의=23일(목) 오후 7시 소량소량(현대백화점 뒤) 062-522-6464.

**종친회**

- ▲동래정씨 광주전남 종친회(회장 정한영) 정기총회=23일(목) 오전 11시 무등고시학원 011-9615-8567.
- ▲의성김씨 광주·전남 종친회(회장 김원규) 정기 임원회의=23일(목) 오후 7시 소량소량(현대백화점 뒤) 062-522-6464.

교육에 관심있는 회원 교육생 모집. 매주 금요일. 062-369-1230.

▲문해 한글과정 지원봉사 여교사·학생=성인한글 초급·중급·고급반, 중앙검정고시반 등 월~금요일 오전 9~12시, 오후 2~4시. 062-591-5397.

▲전통문화 보전 연구회=한문·예절·다도·시조 등 우리 전통문화를 쉽게 익히고 배울 수 있는 회원 선착순 모집. 북구 중흥 3동 동사무소 맞은편 062-268-5588, 010-9440-2512.

▲어린이재단 광주가정위탁지원센터 일반위탁가정=부모의 질병, 가출, 학대 등의 이유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보금자리를 만들기 위한 일반위탁가정을 모집 062-351-1206.

▲광주물세 클럽 수영 동호회원=수영 무료로 지도해주며 30세 이상, 북구 거주자 환영 011-602-2278.

▲광주대 평생교육원 수강생=독

서치료사-매주 월요일 오후 7시~10시, 방과후아동지도사-매주 화요일 오후 7시~10시, 심리상담사-매주 목요일 오전 10시~1시, 강사-시민·아동문학·심리상담지도사 김성구 박사, 평생교육원 062-670-2167, 2168.

▲빛고을노인건강타운 오카리나회원은매주 목요일 주1회(3개월) 건강타운복지관 1층, 광주시 거주 60세 이상 노인 및 기초생활수급자. 062-603-8860~71.

▲(사)베트남친선유공전우회 광주시지부 베트남 참전 전우·회원은 서구지회 018-645-2631, 남구지회 010-8000-6320.

▲씨호크 레저스포츠클럽 동호회 회원=페어링라이더, 행글라이더, 윈드서핑, 수상스키, 제트스키 등. 062-675-8722.

▲백운선 다이빙스쿨 회원=잠수교육, 스낵스쿠버다이빙 062-671-9918.

▲황실 심수수 무료 수강생=쿠션·시계·베개·주자중·방식·액자·지갑·핸드폰줄 제작 등 무료 교육 062-512-4000, 062-528-8500.

**부음**

▲이계순씨 별세 임정식·경석·동식·현숙·현남·점현씨 모친상=발인 24일(금)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2분향소 062-231-8902.

**故人의冥福을 빕니다**

故 박홍주 님(남/79세)  
子: 박재현  
女: 박성민  
葬: 서영월(연립이빈후과월장)  
•호실201호 •발인:6월24일  
•장지:영락공원 •연락처:227-4381

故 김주원 님(남/65세)  
子/子婦: 김철민 / 최현정, 영민 / 김진  
女/妻: 김혜정 / 김주일  
•호실402호 •발인:6월 23일  
•장지:영락공원 •연락처:227-4314

故 최미숙 님(여/62세)  
子/子婦: 박창수 / 김지혜  
女/妻: 박진숙 / 조남현  
•호실101호 •발인:6월 23일  
•장지:영락공원 •연락처:227-4385

마음까지 편안한  
**李 金 浩 장례식장**  
문의 (062)227-4000  
http://www.mykumho.com

故 신관식 님(남/49세)  
子: 신상원  
女: 신수지 妻:신정현  
•발인:6월 23일(목)0시00분  
•장지:영락공원 •연락처:250-4407

故 유금수 님(여/85세)  
子: 김명자  
女: 김명자  
外孫: 백준홍, 백준현  
•발인:6월 24일(목)0시00분  
•장지:영락공원 •연락처:250-4405

**그린장례식장** 24시간대기 (062)250-4455